

2017 슬로바키아의 채용, 실업, 이직

- 슬로바키아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과제

Daneš Brzica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lovak Academy of Science, Senior Researcher

주요내용

- ▶ (현황) 2017년 슬로바키아의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많은 과제가 남은 상황임. 젊은 층을 비롯한 슬로바키아 국민의 해외 이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 (원인과 분석) 낮은 실업률, 젊은 층의 높은 이주, 슬로바키아 내 외국 기업 등을 주축으로 하는 높은 노동 수요로 인하여 임금 상승이 발생할 것임.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임.
- ▶ (전망과 시사점)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슬로바키아의 노동 시장 상황은 개선되었지만, 노동 수요와 노동자들의 해외 이주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슬로바키아 정부는 해외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귀국과 외국인 노동자 채용의 행정 장벽을 완화하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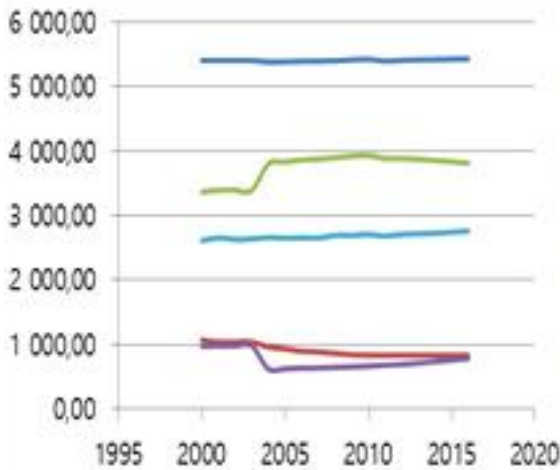
1. 이슈 현황

▶ 슬로바키아의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임.

- 2017년 슬로바키아의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많은 과제가 남은 상황임.
 - 슬로바키아인, 특히 젊은 층의 해외 이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슬로바키아 노동 시장의 상황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1/4분기 슬로바키아의 고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시기 노동 시장의 주요한 변화는 실업률 감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 증가, 젊은이들을 포함한 슬로바키아인들의 해외 이주 증가임.
 - 2017년 5월 슬로바키아의 실업률은 슬로바키아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2017년 5월 등록된 실업률은 7.35% 수준이었으며, 이는 이전까지 최저치인 2008년 7.36%보다도 낮은 수치임.
 - 2017년 1/4분기 슬로바키아 고용률은 2.1%(5만 1,100명) 증가하여 노동자 수는 2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됨.

그림 1. 슬로바키아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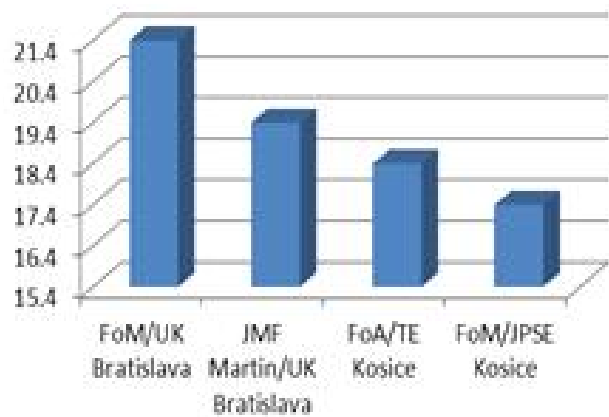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원 : 2017년 슬로바키아 통계청 자료(2017.06.21. 검색에 근거하여 저자가 계산)
 주 : 파란색선 - 총인구 / 빨간색선 - 노동연령 이전의 인구 / 연두색선 - 노동
 인구 / 보라색선 : 노동연령이 지난 인구

그림 2. 해외로 이주하는 슬로바키아 졸업생 비율

(단위: %)



자료원 : 재무정책연구소 자료(2017.06.21.)에 의거하여 저자가 계산
 주 : 해외 이주가 가장 많은 학교임.

- 1/4분기 슬로바키아 내 기업 수는 1만 1,300개에서 36만 600개로 증가함.
 - 피고용인이 없는 기업의 수는 8,400개 증가하여 총 30만 8,600개에 달함.
 - 반면 피고용인이 있는 기업의 수는 2,900개 증가한 8만 2,000개임.
 - 한편, 피고용인이 없는 기업의 경제적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음.
 - 경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은 피고용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임.
- 슬로바키아는 인구학적 위기와 더불어 심각한 ‘인재유출(Brain Drain)’ 현상을 겪고 있음.
 - 슬로바키아는 유럽 중심에 위치하여 오스트리아와 독일과 같은 최선진국과 인접하고 있음.
 - 이는 곧 슬로바키아인들, 특히 젊은 층이 일자리와 공부를 위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이웃 국가인 체코는 슬로바키아와 언어가 유사하여 슬로바키아인들에게 가장 유학하기 좋은 국가이며, 양국 간 체결된 특수 협약으로 슬로바키아인들이 체코 내에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수학할 수 있음.

2. 원인과 분석

- ▶ 낮은 실업률, 젊은 층의 높은 이주, 슬로바키아 내 외국 기업 등을 주축으로 하는 높은 노동 수요로 인하여 임금 상승이 발생할 것임.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임.

- 금융정책기구(Financial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2000~2012년간 슬로바키아를 떠난 사

람 중 절반이 귀국하지 않음.

- 그들이 슬로바키아를 떠나게 된 이유는 당시 실업률이 높았기 때문임.
- 2010~2013년 학부 과정을 마친 학생 중 10% 이상이 해외로 이주함.
- 매년 2만 명이 대학원 과정을 마치며, 10% 이상의 졸업생이 해외로 이주함.

□ 슬로바키아의 실업률을 국내 차원에서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임.

- 가장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프레쇼프(Prešov)와 코시체(Košice) 등 동부 지역이며, 서부 지역, 특히 브라티슬라바(Bratislava)는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함.

표 1. 2017년 5월 31일 기준 슬로바키아의 실업률

(단위: 명 / %)

지역	실업자 수(명)	증감(명)	실업률(%)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13,923	-325	3.64
트르나바(Trnava)	11,976	-568	3.22
트렌친(Trenčín)	15,576	-943	4.28
니트라(Nitra)	22,517	-1,714	5.27
질리나(Žilina)	23,085	-1,230	5.70
반스카 비스트리차 (Banská Bystrica)	41,650	-2,462	11.00
프레쇼프(Prešov)	57,440	-2,534	12.20
코시체(Košice)	50,767	-2,043	11.88
슬로바키아 총합	236,934	-11,819	7.35

자료원 : 2017년 슬로바키아 통계청 자료(검색일 : 2017.06.21)

□ 경제 성장, 사람들의 이주, 외국계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슬로바키아 노동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

- 외국인 노동자는 현재 노동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임. 이러한 추세는 이미 시작됨.
-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많은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고용자들은 외국인 채용 허가 과정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 최근 6일간 지속된 브라티슬라바 폭스바겐 공장 파업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과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이 급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¹⁾

- 폭스바겐 파업에서 노조 측은 임금을 14.1%²⁾ 인상해줄 것과 7월 단 한 번 500유로(약 65

만 원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 노동자들의 이주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차원에서 발생하며, 종종 임금 수준 때문에 이주함.

□ 국내, EU 차원에서 임금 불평등은 슬로바키아 내 이주로 이어짐.

- 슬로바키아 정부는 공공 부문의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점차 높일 계획임.
- 사기업들도 향후 정부와 같은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임.
- 임금 수준이 점차 올라가는 이유는 일부 부문에서 슬로바키아의 노동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임.

3. 전망과 시사점

▶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슬로바키아의 노동 시장 상황은 개선되었지만, 노동 수요와 노동자들의 해외 이주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슬로바키아 정부는 해외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귀국과 외국인 노동자 채용의 행정 장벽을 완화하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

□ 슬로바키아 내 노동 시장의 상황은 실업률이 하락함에 따라 점차 나아지고 있음.

- 한편 경제 성장, 외국인 투자 증가, 해외에서 경험을 얻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이주로 인하여 구체적인 자격이나 기술, 지식을 갖춘 추가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임.

□ 현재 슬로바키아의 낮은 실업률과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향후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고용자들이 임금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고, 임금 조정이 파업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폭스바겐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그 결과는 매우 예측하기 어려움.
- 폭스바겐은 수일 동안의 파업으로 노동자 1만 2,000명의 임금이 10% 넘게 상승함.

□ 슬로바키아 정부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함.

- 첫째는 자국 내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노동자들의 해외 유출의 균형의 조정할 방법을 찾는 것임.
- 둘째는 슬로바키아에서 근무할 외국인 노동자들의 행정 장벽을 완화하는 것임.

EMERiCs

1) 폭스바겐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슬로바키아 내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 폭스바겐의 영업성과도 상당히 좋은 편임.

2) 노조 측은 본래 16%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음. 그들은 협상을 통해 13.9%까지 상승폭을 조정할 예정이었음. 한편 고용주는 최초로 8.9%의 인상을 제안하였으며, 협상 중 9% 이상의 인상을 수용함. 한편 양측 제안에는 한 차례 350유로(약 45만 원)와 200유로(약 26만 원), 기타 편익이 포함됨.

참고문헌

- Statistical Office of the Slovak Republic
- Office of the Government of the Slovak Republic
- Financial Policy Institute
- Pravda
- Trend
- SME
- www.aktuality.sk
- SITA
- press releases

알립니다

-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